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14 세기부터 16 세기에 걸친 석탑

석탑의 개요

이 무렵에 제작된 대표적인 석탑은 석제 솔도파 · 보협인탑 · 오륜탑입니다.

‘석제 솔도파’란 판자 모양의 편평한 돌에 부처를 상징하는 문자나 부처의 모습, 그리고 제작한 날짜와 공양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부드럽고 문자를 새기기 쉬우면서도 얇아서 벗겨지기 쉬운 성질을 지닌 암석으로 만들어진 석제 솔도파가 간토 지방에는 47,0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제 솔도파는 14세기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5세기 후반 이후에는 감소했고, 16세기 말에는 제작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협인탑은 원래는 경전을 보관하는 탑이었으나, 나중에는 돌로 외관을 본떠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무사나 부유한 상인의 묘탑이나 공양탑으로서 제작되었는데, 에도 시대에도 다이묘 또는 하타모토(둘 다 영지를 소유하고 에도 막부에 충성을 맹세한 무사)의 묘탑이나 공양탑으로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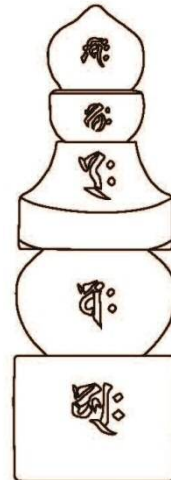
석제 솔도파



보협인탑



오륜탑



오률탑은 불교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하늘·바람·불·물·땅을 돌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탑 모양으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늘·바람·불·물·땅을 상징합니다. 여러 개의 돌을 조합한 오률탑보다도 하나의 돌로 형상을 조각한 오률탑의 수가 차츰 많아졌습니다. 오률탑의 대다수는 표면에 부처를 상징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 이후에는 하늘·바람·불·물·땅의 5대 요소가 새겨진 오률탑도 출현했습니다.

시나가와구 내의 석탑

고텐야마 석탑군: 시나가와 포대 축조를 진행하던 1854년, 매립 재료인 흙을 채취하기 위해 고텐야마를 깎았더니, 사람 뼈와 함께 다수의 석제 솔도파와 보협인탑·오률탑의 부재가 출토되었습니다. 도카이지 절에 남아있는 기록과 평면도의 정보로 보아 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3·4초메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토품은 도카이지 절에서 공양한 후 호젠지 절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석제 솔도파 119개, 보협인탑 부재 51점, 오률탑 부재 104점이 전해집니다.

석제 솔도파는 14세기 초엽부터 15세기 말까지 건립된 것이며, 대부분은 14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전반의 것입니다. 그중에는 다마가와 강 하류 유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상의 석제 솔도파가 15개, 도쿄만(灣) 북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상의 석제 솔도파가 5개 있습니다.

보협인탑은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전반, 오률탑은 15세기 초엽부터 16세기 초엽에 걸쳐 건립된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즈반도산 안산암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부는 다마 지역(도쿄도 서부)에서 나는 사암으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가이안지 절의 오률탑: 가이안지 절에는 4개의 오률탑이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오률탑은 죽은 후에 하는 공양을 생전에

미리 하기 위해 149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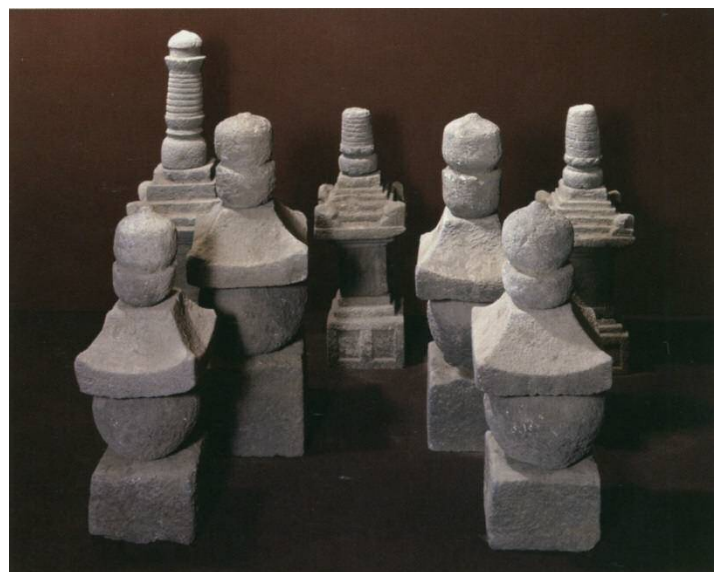
또한 가이안지 절의 오륜탑 중에는 시나가와 주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간토 지방 북부 특유의 디자인을 지닌 오륜탑이 있습니다.

이들 석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처럼 시나가와의 석탑에는 다른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상의 것과 다른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것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석탑이 존재한다는 것은 연안부에 사원이 늘어서 있어서 유통 거점으로서 번영했던 시나가와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고텐야마에서 출토된 석제 술도파(호젠지 절 소장)



▲고텐야마에서 출토된 보협인탑·오륜탑(호젠지 절 소장)